



아름다운 청년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새보람

SAEBORAM



아·태장애인 10년 지역워크숍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27호

2011년 8월

장애인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2008년 4월 11일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장애인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갑시다.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머 참자 참어...



8월 30일 개최된 장애인전문요양병원 '새보람요양병원'의 개원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운영하는 장애인전문요양병원 '새보람요양병원(원장 한원호)'이 8월 30일(화) 오후 2시 병원 앞에서 개원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의 운영법인인 지장협의 오랜 준비 끝에 이날 개원한 새보람요양병원은 지장협 회관인 상곡빌딩(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해 있다. 지상 5층 규모로 80여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비롯해 노인성질

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지역사회 복지·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한원호 원장을 비롯한 전문의료진과 최신의료장비를 확보,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또 하나의 가족'을 병원 모토로 삼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을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는 병원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새보람요양병원 한원호 원장은 "장애인건강 및 복지증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장애인전문요양병원의 초대 원장으로 일하게 되 기쁘다"며 "탄탄한 진료시스템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봉구를 넘어 전국 최고의 장애인전문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함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장애인위원장),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

정책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도봉구의회 이석기 의장 등의 내빈과 협회 임직원,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커팅식, 리셉션 등을 함께 하며 새보람요양병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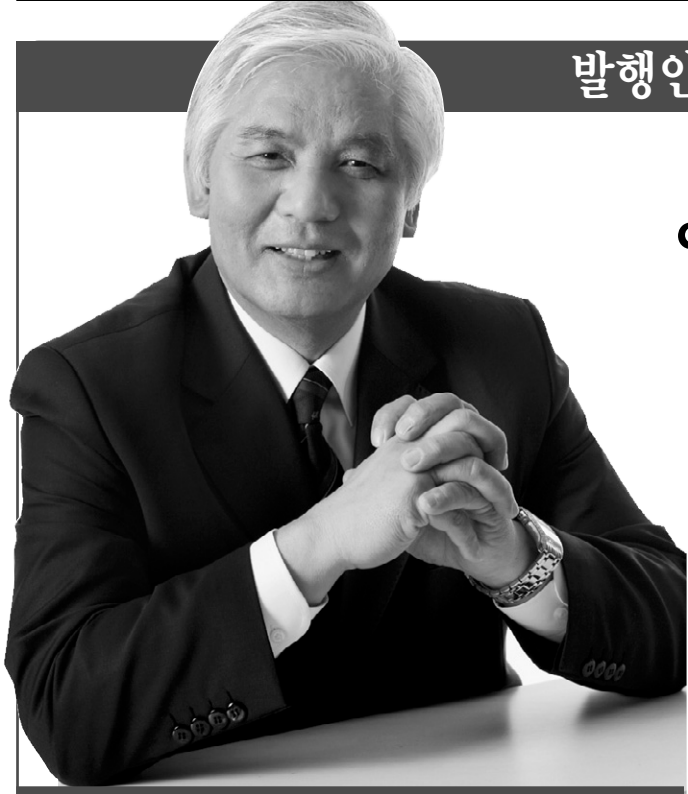
병원의 이사장인 김정록 중앙회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은 병원의 진료·치료 등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는 장애인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과 비용의 부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의 사정과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당사자단체 중 처음으로 새보람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보람요양병원은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지역장애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병원"이라고 밝히며, "새보람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을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는 '따뜻한 병원'을 전국적으로 설립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P12~13 계속〉

발행인 칼럼



아름다운 청년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모으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장애인육상선수입니다. 또한 종아리뼈가 없어 생후 11개월 때 두 다리의 무릎 아랫부분을 절단한 장애인이지만,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9일(월) 직접 대구를 찾았습니다. 400m 3조 준결승전에 출전하는 피스토리우스의 감동적인 레이스를 직접 확인하고, 그의 아름다운 도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 그의 첫 번째 도전은 준결승전에서 멈췄습니다. 8월 29일(월) 열린 남자 400m 3조 준결승전에서 피스토리우스는 출발 총성이 울리자마자 전광석화 같이 튀어나갔습니다. 그의 역주 모습에 관중들도 열렬한 응원을 보냈고, 이에 힘을 얻은 듯 그는 중반까지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스피드 부족으로 선두권에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고, 결승점을 100m 앞두고 역주를 펼쳤지만 결과는 조 8위(46초19)로 결승점을 통과, 전체 22위에 그치며 8명이 겨루는 결승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를 마친 후 그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밝은 미소로 함께 레이스를 펼친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비록 그가 그토록 원하던 결승진출과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해왔고 모든 전력을 다 해 레이스를 펼친 만큼, 후회 없는 경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대구 스타디움은 그로 인해 아름다웠습니다.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 1일(목) 400m 결승전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열리는 1600m 계주에 그가 출전합니다. ‘아름다운 청년’ 피스토리우스의 ‘아름

다운 도전’에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피스토리우스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위야 어떻든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리는 그가 전해줄 ‘기적’과 ‘희망의 메시지’는 무한할 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가슴깊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며, 세상의 장벽을 이기고 우뚝 서는 동력(動力)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보람 독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오는 9월 12일은 추석(秋夕)입니다.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1. 8. 30

중앙회장 **김정록**

◆ 김정록 중앙회장 동정(7월16일~8월30일) ◆

월/일	내 용	일시	내 용
7/18	한국장애인개발원장 후보자 서류심사	8/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단 회의
7/19	인권위원회발대식 (2권역, 대전·충북·충남)	8/9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 토론회
	제130차 시·도협회장 회의	8/10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기관장 간담회
7/20	중앙회 월례회의	8/11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회
		8/12	도로교통공단 협약식
7/21	하계바다체험대회(포항 북부해수욕장)	8/16~19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지역워크숍 (인도 뉴델리 타이궁전호텔)
7/22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후보자 면접	8/24	한국장애인개발원 오찬
7/25	인권위원회발대식 (3권역, 광주·전북·전남·제주)	8/25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순시
7/27	인권위원회발대식 (1권역, 서울·인천·강원·경기)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순시
	베트남장애인협회, 중앙회 방문	8/26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순시
7/28	인권위원회발대식 (4권역,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8/29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순시
		8/30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석 새보람요양병원 개원식



베트남장애인협회 방문(7월 27일)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지역워크숍(8월16일~19일)

‘2011년 장애인바다체험대회’ 개최

지역장애인에게 ‘해양레저활동’ 기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협회)는 지난 7월 30일(금) 제주시 김녕해수욕장에서 ‘20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바다체험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과 한국마사회의 협찬하에 개최했다.

최근 여가 및 해양 레저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부재로 인해 휠체어나 목발 등의 보장구에 의지하는 중증장애인 및 기타 유형별 장애인들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제주협회는 장애인들에게 해양 레저활동 및 여가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



‘201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바다체험대회’의 참가한 장애인들이 바나나보트를 타며 스릴을 즐기고 있다.

활동을 통한 성취도를 높여 감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자 이날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바나나보트 체험, 래프팅, 수영 등의 해양체험 프로그램과 한마당 행사로 레크레이션과 노래자랑 등 다양

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문화관광 위원회 위원장, 고충홍 도의회 복지안전 위원회 위원장, 김태석 도의회 환경도시 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빈이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광산구청 규탄 집회 실시

광산복지관 법인 약속 미이행... “계약 즉각 해지해야”



8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앞에서 열린 ‘광산구청 규탄 집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이재홍, 이하 광주협회)와 지역장애인들이 광산구 우산동에 소재한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의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 광주협회측과 광주지역 장애인들은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

난 2002년 2억원의 법인전입금 납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41%에 불과한 8천2백여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미납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광산구청이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재단에 복지관재수탁을 해주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미납된 법인전입금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복지관수탁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세계육상 ‘장애인응원단 서포터스’ 발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창환)는 8월 23일(화) 오후 대구 웨딩알리앙스 5층 대연회장에서 장애인 서포터즈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장애인응원단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서포터스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애인응원단은 앞으로 성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장애인응원단 서포터스’의 단원들이 발대식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공적인 대회 개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표 방지를 위해 대구시, 기업, 단체에서 입장권 800여부를 기부 받아 경제

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회에 동참 할 수 없는 지역 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지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



8월 3일 실시된 ‘지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 모습.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협회)는 8월 2일(화) ‘지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대전협회가 하반기에 개최 또는 참가할 예정인 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부제:2011년 장애인박람회, 9월 8일), 대전장애인자활실천대회 및 합동결혼식(10월 6일),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10월 19일~20일) 활성화 및 참여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석연 협회장은 오는 9월 8일(목) 한밭운동장에서 열리는 ‘대전장애인한마음축제’와 관련해 “올해에는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에는 협회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는 10,000명의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제로 보장구전시회, 장애인체육박람회, 장애인생산물전시회, 보조공학전시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결혼하고 싶은 미혼 장애인 분들 장애인 맞선 프로그램에 신청하세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가 오는 9월 30일까지 장애인맞선프로그램 ‘숨을 보석을 찾아라’ 참가자 60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 및 인원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혼 장애인이다. 여성 참가자에게는 기념품도 증정된다.

‘장애인 맞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오는 9월 30일까지...남·여 60명

‘숨을 보석을 찾아라’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춘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자기소개와 레크리에이션, 결혼성공사례듣기, 장기자랑, 개별데이트, 프리포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성사된 커플에게는 오

대산 국립공원 데이트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 및 상담이 이뤄진다.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www.kwa.pp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iche200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임원 하계수련회’ 개최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지난 7월 26(화) 조마면 조마교 아래에서 회장단, 운영위원, 분회장이 모인 가운데 임원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하계수련회에는 박보생 김천시장과 박선하 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운영위원, 분회장 등 50여명과 김천시청 복지위생과 장정영 과장, 김진홍 조마면장, 조영애 계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원수련회 특강에서 박선하 지회장은 ‘역량 강화’란 주제로 강의를 통해 “항상 웃으며, 행복을 나누어 주며, 다른 사람을 돕고, 용서하고,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의 완성이다”



‘임원 하계수련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박보생 김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지회장을 통해 건의하면 최대한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련회의 참가자들은 특강 후

비빔밥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탁트버드 골프, 스피드게임, 복불복 게임 등을 통해 조별로 체력을 단련했다. 또한 조별로 진행된 장기자랑을 통해 평소 숨겨두었던 재치를 뽐내는 물론, 지역장애인들과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센터’ 운영

1일 4시간 가사도우미 파견...육아·살림 지원

경북협회 경주시지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지회장 이상인)가 여성장애인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센터는 저소득 여성장애인 가정에 1일 4시간씩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육아와 살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출산 전·후 조리 지원, 육아지원, 가사지원, 외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사도우미를 파견받고 있는 김모(33·지체장애 2급)씨는 “장애로 인해 기저귀 가는 법, 목욕 시키는 법조차 몰랐고, 힘들어서 잘하지 못했다”며 “가사도우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또한 아기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해했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1~3급 장애인으로 임신 중이거나 만 5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054-745-2255)

대전협회 동구지회

지난 8월 17일(수) 오후 3시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에서 ‘제6회 작은사랑후원회 장학금전달식’이 실시됐다.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장학금전달식은 동구지회의 후원단체인 ‘작은사랑후원회’의 회원들이 장학금을 모금, 동구지회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현재까지 154명의 학생에게 총 6,600여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날 장학금전달식을 통해 동구 장애인가정의 29명의 학생들 중 초등학교생 30만원, 중학생 40



지난 8월 17일 열린 ‘제6회 작은사랑후원회 장학금전달식’ 모습

만원, 고등학생 45만원, 대학생 50만원씩 총 1,09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편 ‘작은사랑후원회’는 현재 (주)21세기시상품 대표이사 남상규 회장, (주)신화금속 대표

이사 정찬욱 상임고문을 비롯한 7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지역의 장애인가정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제6회 장학금 전달식’

장애인편의시설 카툰전시회



구미지역 주민들이 카툰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경북협회 구미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지회장 권순종)가 지난 8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구미형시립도서관 전시실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카툰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는 구미지역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경사로, 대중교통수단 등과 관련된 ‘장애인편의시설’을 알기 쉬운 카툰(cartoon:만화)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미시지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임산부 나아가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임을 알리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구미시지회 권순종 지회장은 “여름방학이라 학생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하며 “구미형곡시립도서관을 시작으로 구미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을 순회, 카툰전시회를 개최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27호 2011년 8월 30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명서

“큰 병원 가서 약값 더 내면 억울한 장애인 생긴다”

오는 10월부터 감기로 큰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 약을 사면 약값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2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52개 질병의 약값 인상에 대해 고시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를 일부라도 국민에게 떠 맡겨 해결하려는 의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당국은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현재의 본인부담금 30%에서 40%, 대형상위병원은 50%로 인상된다.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라 하지만, 서비스의 질적 경쟁은 당연하다. 먼저 경쟁에서 국민들은 대형병원을 더 신뢰하고 집중화되는 것이 힘으로나 부담을 더 주어 막을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소형병원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통제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얼마 이상의 환자가 오지

않는 병원이 자진신고하면 그 병원에 먼저 가지 않으면 부담금을 더 내게 하는 기준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면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형병원을 가면 부담금을 감해주는 정책이어야 했다. 보건소는 전달체계가 잘 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하니 환자가 적지 않다.

국민들이 동네 병원보다 교통비를 들어가며, 또 많은 대기시간을 버려 가면서도 대형병원을 가는 원인을 찾아 해소하지 않고 단순히 부담금을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근본적 의료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오늘의 문제를 다시 미봉책으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애인들은 동네 병원이 주로 엘리베이터도 없는 2, 3층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

고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복용하는 약이 같이 복용해도 무방한지 자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의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형병원을 갔다가 다시 동네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에 해당하는 52개 질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국민이 전문의도 아니고, 질병별로 일일이 동네병원 가야 하는지 체크해 본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특히 만성통증의 약, 장장애 등 내부장애인의 만성약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자주 사용하는 약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등록시 판정점수에 전문의를 얼마나 자주 찾아 치료를 받았는가, 입원을 최근에 하였는가 등을 따져서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을 가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병원을 자주 가도록 유도하여 장애판정을 통하여 의사 수익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치료를 강조하면서 전문의가 아닌 동네병원을 가지 않으면 약값을 더 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 결국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본인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대형병원 집중화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음은 2009년 진료비 부담률을 인상하여도 전혀 효과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만성질환으로 여러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생 주치의의 지정하여 놓고 그분에게 생명을 맡기다시피 하

면서 살아오는 장애인들은 이제 생명값을 더 내고 살아야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중증 장애인(1~3급) 장애인만이라도 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장애가 아니라 능력이 맞지 않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나, 복지를 구현한다면 1천원 올린 연금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부담을 배로 가중한다면 견디다 더 이상 못 견디는 장애인들은 삶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나갈 것이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DPI,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복지관 개관 7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7월 22일 열린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7주년 기념식’에서 복지관 이용자,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의 개관 7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월 22일(금) 의정부장복

강당에서는 복지관 이용고객, 지역주민 및 직원 3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의정부장복 개관 7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의정부지역 장애인의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했던 지난 7년의 기억을 되새기고 임직원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장

애인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각오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의 1부에서는 김인숙 관장의 기념사, 안병용 의정부시장축사(김정진 부시장 대독), 문희상 국회의원, 노영일 시의장님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실시된 2부 축하공연에서는 민락중학교에 재학 중인 정유진·정유미 자매의 가야금 연주 등이 실시됐다.

특히 이날의 깜짝공연이었던 변은석·조운식 공익근무요원의 기타 앙상블 공연과 복지관 1층 로비에서 마련된 뜨개방 동호회원들의 ‘뜨개작품 전시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의정부장복 김인숙 관장은 “오늘의 기념식을 통해 의정부시에서 장애인 복지의 등대가 되고자 출발했던 지난 7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지역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연금이와 떠나는 공감여행’ 실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북부장복)의 이용 장애인 20여명이 지난 8월 26일(금) 복지관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하 공단)이 함께 마련한 ‘연금이와 떠나는 공감여행’을 통해 전라북도 전주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여행을 떠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의 만족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북부장복과 공단이 합심해 마련한 것이며, 지난 3월의 충북 제천 여행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여행에 참가한 복지관 이용자들은 전주 전통시장과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도자기·부채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연금이와 떠나는 공감여행’에 참가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총리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장애인 복지”



김황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장애인고용 모범업체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한 장애인과 수화로 인사하고 있다.

“장애인 일 효율성 떨어진다는 편견 버려야”

김황식 총리는 지난 8월 17일 (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고용 모범업체 대표 30명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범업체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장애인은 집중력이 뛰

어나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공생발전’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없이 모두가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근로기

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0년 2.3%에서 2014년 2.7%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미고용 기업의 부담금 가산 대상 업체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10월부터 장애인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사활동 보조 외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 선거 2파전

진용우 · 이정선, 후보 등록...한판승부 예고



기호 1번 진용우 후보(좌)와 기호 2번 이정선 후보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제6기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진용우 후보와 이정선 후보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지난 8월 24일(수)부터 25일(목) 이틀 동안 진행된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 후보 등록결과 진용우, 이정선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 1번인 진용우 후보는 핵

심공약으로 ▲당의 장애인정책에 장애인위원회 의견 반영 제도화 ▲각 선거마다 당의 장애인 공약 마련 및 검증에 장애인위원회 참여 ▲장애인관련 기관장에 장애인위원회의 합의된 인사 추천제 마련 ▲당 조직(타 위원회 등)에 일정 장애인포함 추진 등을 내놓았다.

기호 2번인 이정선 후보는 ▲

장애계의 정치참여 확대 ▲대통령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승격 완료 ▲장애인연금 인상 조기달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위한 추가급여 지속적 확대 ▲재활보조기기 등 장애인에 필요한 기기 확대 보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 후보는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1기~4기)으로 활동, 현재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 5기 중앙장애인위원장과 한국장애인정책포럼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한편, 당선자는 오는 9월 2일(금) ‘제6차 전국장애인대회 온라인 대의원투표’를 통해 가려진다.

〈출처-에이블뉴스〉

정부, 4개 부처 ‘소폭개각’ 단행

신임 복지부장관에 임채민 총리실장 내정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명박 대통령은 8월 30일(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에 따라 신임 통일부장관에 류우익(62) 전 주중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광식(59) 문화재청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금래 의원이 내정됐다

한편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됐다. 임 내정자는 정통경제 관료 출신으로, 현재 국무총리실장이다. 1981년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 통상진흥국(82년), 통상산업부 구주통상담당관(96년), 산업자원부 철강금속과장(97년) 및 총무과장(2000년), 공보관(2002) 등 경제부처를 두루 거쳐 2008~2010년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지냈다.

각계에서는 경제 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의 발탁에 ‘의료법인 민영화’나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53) ▲경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4회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

5년 탄 LPG차량 비장애인에 판매 가능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비장애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목) 입법예고했다.

기존 장애인 등의 LPG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비장애인이 구매할 수 없게 제한돼 있어, 장애인이 LPG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동종의 휘발유 중고차보다 400~500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민원이 상당해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온 전화민원이 하루 1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허용되

는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최초 구입한 시점부터 5년 사용한 LPG차량이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장애등급이 취소돼 노후된 차량을 팔자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등 피해가 많았고 민원도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민원이나 피

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부터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장애인에 대한 LPG차량 처분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진단지원 사업비 98% ‘물거품’

예상인원 9800명, 고작 182명만 지원 후 종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이하 장애진단지원사업)’이 고작 예산의 2%가량만 사용된 채 마무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모금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진단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모금회는 테마사업으로 복지부에 2010년 6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장애진단비용 명목으로 9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복지부는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해 행정적인 업무수행을 맡겼다.

이 사업은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재심사(MRI진단·검사)를 받는 기존 등록 지체장애인(뇌

병변 미전환자)과 뇌병변장애인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총 9,800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마련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기간 7개월 동안 182명의 장애인에게 진단비를 지원한 채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원목표 인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애초 장애진단지원사업은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은 물론,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제기 받았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사업 시행기간이 절반이나 지난 9월 말까지의 지원실적은 총 134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쳐, 예산집행률이 1.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장애

인개발원은 사업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MRI진단비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호가하는데, 10만원만 지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행과 홍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기간 3개월여 동안 50여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결국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모금회에 반납,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중간에 서류가 완화되는 등 MRI 검사대상자가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사업 초기보다 줄었다. 그래서 실행실적도 저조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모금회 관계자는 “사업을 시

작하면서 신청이 많을거라 예상했지만, 애초 파악한 수요만큼 신청률이 좋지 않았다”며 “취지가 너무 좋았던 사업인데 사업진행과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모금회 관계자는 “홍보에 주력하고자 해 사업 상반기에는 홍보에 집중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연금신청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신청 자체를 꺼렸고, 지원금 신청도 같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금회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에도 홍보 부분을 부탁했지만, 시기상 장애인연금이 핵심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 자체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원대상 확대는 사업대상 기준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장 마지막 대안이었지만, 사업기간이 짧아 한두달 남겨놓고 사

업을 정비하긴 어려웠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는 지자체에서 지원신청서가 올라오면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등의 행정처리만 담당했다”며 “홍보 부분은 우리의 사업역할이 아니었고, 우리는 주어진 행정처리 역할을 충실히 했다. 복지부의 사업종료 주문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남은 사업예산은 반납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업 배분분과 위원인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많은 금액이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사업이었다. 하지만 홍보도 미흡하는 등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고 평가했다.

〈출처-에이블뉴스〉

홍정욱 의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개정안 발의

공급확대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콜택시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달 29일(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

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회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지정해 운영할 경우 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



‘장애인콜택시 지원’ 관련 개정안 발의한 한나라당 홍정욱 국회의원.

유에서다.

또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 차량,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등과 같이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통행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

홍 의원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기본족인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들이 삶의 활력

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활동지원제도 신청 접수 시작

읍·면·동주민센터, 공단 지사 방문해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가 8월 8일(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제도를 위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사전 접수이며,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며, 국

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 후 수급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존 활동보조를 받아왔던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단 추가급여(1인가구 제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무화된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는 ‘거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되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가입 거부의 칼날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을 못하거나 안하면, 위법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의 A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롯데손해보험의 영업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려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여기서 영업책임배상보험은 피보험자인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A장애인보호작업장 소장은 지난 7월 초 현재 가입된 타 보험사의 영업책임배상보험 가입 만료일이 다가와 다른 보험사의 보험을 알아보던 중 롯데손해보험 설계사에게 보험설계를 받았다. 가입했던 보험사보다 월 보험료가 비쌌지만, 보상한도액이 높아 가입하고자 마음을 먹고 보험가입설계서를 작성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

보험사, “일반건물 변경사용, 관리인 부족해서”



대구에 있는 A장애인보호작업장 모습. ©에이블뉴스

전 보험사의 만기일인 20일이 다가올수록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20명의 근로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하는 불안이 심해졌다. 만약 만기일이 지나고 보험가입이 되기 전에 작업장의 화재나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인에게도 보상을 해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18일 소장은 ‘왜 아직 인수심의를 안 끝났나’며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알아보겠다’는 대답을 들은 후 롯데손해보험 서울본사로부터 시설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서류를 보냈다. 그때만 해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될 줄 알았다.

19일 소장은 설계사로부터 ‘심의를 판단하는 본사 팀에서 장애인시설의 손해율이 110%로 비장애인시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인수(가입)해 줄 수 없다’며 인수심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지역지사에서 1차 인수심의를 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본사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본사에서 승낙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법인산하에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는 영업책임배상보험에 가입이 됐거든요. 왜 보호작

업장은 안된다는 겁니까? 이용인이 근로를 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된 것 같아요.”

소장은 ‘장애인 차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진정 및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최근 인권위나 금감원에서 장애인 차별이라고 시정권고나 개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롯데손해보험처럼 큰 기업에서 보험가입 거부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손해율 및 사고율이 높거나 시설 환경이 미

비하다고 판단되면 인수(가입)되기 어려운 편이지만 A보호작업장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인수심의가 불가결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A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일반건물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일반시설보다 위험율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관리인(시설 책임자)이 2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상식선에서 현 이용인이 많아 3명은 돼야 한다고 본다. 관리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인수(접수)가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의 주장대로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안된 것이라면 장애인차별에 해당될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염형국 변호사는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염 변호사는 “A보호작업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안 된 것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17조에 근거해 장애인차별에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실제적으로)차별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위나 금감원 등을 통해 진정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장차법 제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인권위,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해야”

코레일·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사장에 개선 권고

남녀 구분 설치돼 있지 않은 수도권 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수도권 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8월 18일(목) 밝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연대 등 4개 장애인단체는 2010년 6월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등 3사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재가 과도한 상황에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비

용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 설치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점 ▲장애 유무를 떠나 남자와 여자는 사회통념상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 고



남녀를 구분해 설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화장실 모습.

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코레일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하고 관할 모

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실태 점검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국토해양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각각 권고했다.

지체장애인, 복지관 수영장서 익사

유족 및 복지관 측의 진술 엇갈려



복지관 직원이 익사 사고가 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체장애 3급인 지모씨(24세)가 지난 8월 24일(수) 오후 9시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도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씨는 이날 수영 강습 중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이를 발견한 다른 회원들에 의해 구급대에 실려갔지만, 병원 도착 직후 숨졌다. 당시 수영장에는 수영 강사 2명과 안전요원 1명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영장에서는 불과 몇 달 전에도 5살 어린이가 같은 장소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복지관

은 두 차례에 걸쳐 익사사고가 발생하자 서둘러 수영장을 폐쇄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체육센터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초급 및 상급 수영강습생 19명이 안전요원 1명, 지도교사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다. 이날 지씨는 상급 수영을 마친 뒤 오후 9시가 되기 전 정리체조를 하고 있었다. 이때 지도교사가 공지사항을 전달했고,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공지사항을 모두 전달한 뒤

한 수강생이 수영장에 사람이 빠졌다고 외쳤다. 안전요원은 즉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지씨를 건져 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 복지관 관계자는 “사우나실에 있었던 어머니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하는 안전요원에게 ‘아들이 발작 증상이 있느니, 인공호흡을 세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심폐소생술 후 지씨가 깨어났으며,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숨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지 씨는 어금니를 치과에서 받치려 한 후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강습을 같이 받던 동료에게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

다”면서 “체육센터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은 26일 오전 지 씨의 장례를 치른 뒤 전화통화에서 안전요원, 지도교사들이 모두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업무태만’임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사고를 당한 후 원전요원이 119에 신고한 시간이 오후 8시 52분이었다고 확인해줬다”면서 “심폐소생술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오후 8시 40분 경 사고가 났고, 이후 5분간 물속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 수영장에 3명, 유아수영장에 2명 등 총 5명의 안전요원 및 지도교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익사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안전요원 및 지도교사가 모두 수영장에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족 측은 발작 증상과 관련 “없었으며, 건강했다”고 일축했다. 지 씨는 수영 경력이 88 체육관에서 3년, 체육센터에서 7년 등 총 10년이며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관 관계자는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정리체조 시간에 안전요원, 지도교사 중 자리를 비운 사람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현재 체육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 판사-벤처 신데렐라, 이혼 이어 고소戰

지난 6월 이혼...결국 법정싸움으로

성공한 여성 벤처 사업가와 장애인 재미 법조인의 결혼이 파경을 맞은 데 이어 고소전까지 벌어졌다.

8월 8일(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장안의 화제 속에 결혼했다가 지난 6월 이혼한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44)씨는 전 부인인 웹젠 전 사장 이수영(46)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이혼 후인 6, 7월 일부 여성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면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얘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두 사람이 민사소송 과정에 주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서면 조사해 고소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월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씨는 2000년 창업했던 온라인 게임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벤처 사업가로 유명세를 떨쳤으



지난 6월 이혼에 이어 법정싸움으로 번지며 파국을 맞은 정범진·이수영 전 부부.

며 중증장애를 딛고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와 2004년 전격적으로 결혼을 발표했다.

정씨는 그러나 결혼 후 자신의 도움으로 이씨가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이 해결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시설 짓겠다” 사회적기업 대표 입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돈을 빌려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 울산지역의 사회적기업 대표 등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8월 17일(수) 장애인관련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장애인고용공단의 돈을 저리로 빌린 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사기)로 울산지역 사회적기업 대표 김모(56)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의 사회적기업 대표 김씨 등은 2008년 장애인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단에 신고해 1억9천600만원을 융자 받은 뒤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

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시설을 건립할 때 공단이 장기 저리(연 3%)로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지만 실제 건물은 하나도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설업자에게 공단에서 빌린 돈을 쥐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꾸민 뒤 다시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감사를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담당 경찰관은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을 써 공단 보조금을 받았다가 전 대표가 구속됐다”며 “계속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4월로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능성 있다”

복지부, 예산 606억원 요구…기재부와 협의 중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하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 4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2일(월) 입법 예고했다.

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매년 9월이던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장애인의 달인 ‘4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적기에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서류작성 등에 있어 사업주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시기가 동일한 유사 서식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9월 5일(월)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130%에서 최대 185%로 상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장애인만 할지 등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예산으로 606억 6,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면, 6만1,000명이 신규로 수급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은 9월 말까지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간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나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면, 수급권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장애인계와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국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자원봉사단 발대식 기념촬영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

자원봉사자, 온라인기자단 등 420여명으로 구성

“성공 개최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 다짐

“서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자원봉사자와 온라인기자단 420여명은 8월 18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원봉사단 발대식’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이날 이현재(자원봉사자)·정은혜(온라인기자단) 씨는 대표선서를 통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

실한 태도로 자원봉사에 임할 것”이라며 “민간외교관이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후 이들은 대표로 자원봉사자임을 알려주는 타이슬링(넥타이 대신 착용할 수 있는 장신구)을 착용했다.

자원봉사자와 온라인기자단 420여명은 발대식을 마친 뒤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기본소양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분야별 전문교육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기

간 동안 공항 영접, 개·폐회식, 환영리셉션, 기능경기, 심포지엄 및 국제회의 분야 등 7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기자단은 오는 10월 7일까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 개별적인 취재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

한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50개국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AT센터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된다.

내년 최저생계비 3.9%인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개최해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만3000원, 4인가구 149만5000원이다.

또한 현금급여 기준도 3.9% 인상되며 1인가구 45만3000원,

4인가구 122만4000원이 된다.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해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됐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해 중생보에 보고했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2011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3.9%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기준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9%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보건복지부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홀대에 장애계 ‘발끈’

대한장애인체육회, “평창올림픽 지원법 등 명칭 변경 절실”



평창동계올림픽 CI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윤석용, 이하 체육회)가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홀대는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체육회는 8월 24일(수) 성명서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이하 평창특위)는 즉각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면서 “평창 관련 지원법 통합법안명에는 반드시 ‘장애인올림픽’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평창특위 명칭에

‘장애인올림픽’이 빠져 있어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특위 명칭에서도 ‘장애인’이 빠진 상황인데, 통합법안 명칭에도 ‘장애인’이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지원특위 명칭에 ‘장애인올림픽’은 배제됐다.

또한 평창유치를 위해 발의된 총 3개의 지원법안 중 2개 법은 법안명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장애인올림픽 지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대회는 위원회 명칭이나 법적 명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법 명칭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 조직위원회 설립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법안을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포함시킨 명칭으로 변경하고, 2014 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체육회는 “이 같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평창올림픽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에 개탄한다”고 꼬집었다.

이 어 체육회는 “2001년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과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 동·하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차별없는 통합에 합의의 협약을 체결한 결과, 내년에 개최되는 런던올림픽까지도 조직위 명칭이 ‘2012런던올

림픽·장애인올림픽으로 당연히 사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명문화된 약속을 저버리고, 국제대회 관련 명칭에 장애인을 포함하지도, ‘장애인대회지원법’에 장애인대회를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체육회는 “이는 장애인올림픽이 비장애인올림픽과 하나라는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올림픽을 비장애인올림픽의 부대행사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을 홀

대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처사며,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차별”이라며 “10년을 기다려온 장애인선수들의 염원과 꿈을 현실화시킬 2018년 장애인동계올림픽이 우리사회에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기지 않도록 다각도의 법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어떠한 국제대회든 간에 장애인대회가 동반 개최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대회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영화 ‘도가니’ 9월 스크린 개봉

공지영 원작...청각장애학교 충격 실화



영화 ‘도가니’ 속 공유(좌)와 정유미.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유,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가 오는 9월 22일(목) 개봉을 확정 지었다.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대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 ‘도가니’는 공지영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했다. 원작 ‘도가니’는 출판 당시 2005년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황동혁 감독은 “‘도가니’의 실화를 접한 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관객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연출의도를 밝혔다.

공지영 작가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는 한 줄의 기사가 ‘도가니’의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또 피해자를 옹호하던 교사들은 오히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지영은 그동안 준비해오던 다른 소설을 접고 ‘도가니’를 집필해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을 세상에 전했다.

2008년 11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6개월간 연재된 ‘도가니’는 1600만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고, 2009년 오프라인 소설이 출간됐다.

김연아, “스페셜 올림픽위해 적극 활동하겠다”

김연아(21)가 지적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앞장섰다.

김연아는 지난 8월 18일(목) 서울 노원구 하계동 동천학교에서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13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큰 대회.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열린다. 작년 10월 대회 유치에 성공한 조직위 측은 대회 성공을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영웅 김연아를 홍보대사로 선택했다.

이날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연아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의 홍보대사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관심을 이번 대회에서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연아는 이번 위촉식에 앞서 지적장애인 피겨스케이터들과 원포인트 레슨을 가졌다. 김연아가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익숙지 않은 일. 김연아는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어 조금 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히며 “자신감이 부족해 동작이 정확하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



지난 18일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하면 다른 선수들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장애인 건강 · 복지의 요람 ‘새보람요양병원’

지장협이 운영하는 ‘장애인전문요양병원’ ... “가족의 마음으로 섬길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가 운영하는 장애인전문요양병원 ‘새보람요양병원’은 단순 보호시설이 아닌, 진료와 재활물리치료, 간병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최상의 의료진과 24시간 전문 간병사로부터 세심한 진료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의 대부분이 대학병원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은 물론 장애인을 가족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겸비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를 위한 ‘고품격 입원실’을 갖추고 있다.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한 최고급 전동 의료용 침대와 순면 원단을 사용한 환자복, 베개,패드, 시트,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다. 전영교환방식을 통한 환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은 물론, 모든 병실에 LCD TV와 자동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개원된 병원이니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면 20~30% 정도의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모든 식사는 천연조미료를 사용하고 있고, 충분한 영양공급 및 균형적인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 의료장비

방사선 장비의 PACA 연동으로 실시간 영상조희서비스와 최신식 의료기기 및 재활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다양한 진료와 재활프로그램으로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팀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증치료

통증치료는 각종 질환이나 손상에 의해 발생한 급성·만성의 지속적인 통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치료장비를 이용하여 통증을 조절, 연부조직의 염증을 제거, 근경련의 이완, 순환, 증진 등 환자의 통증 완화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이다.

작업치료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하여 환자를 치료. 환자의 적응능력과 생산적인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학습하도록 도와주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이다.

재활치료

뇌병변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손상과 근골격계 질환 환자와 치료사간의 1:1치료를 통해 통증부위 및 기능상실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개선하도록 하는 치료이다.

운동치료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경 및 근육 혹은 관절계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 증진시키거나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말한다.

■ 요양치료

요양환자들을 위해 내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제공과 환자의 간병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를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는 물론, 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8월 30일 개원한 ‘새보람요양병원’ 전경.

입원대상자

뇌손상, 치매 등의 만성 노인성 질환자.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스스로 거동을 못해서 간병이 필요한 자. 수술 후 계속하여 간병치료가 필요한 자. 후유장애로 계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

입원실

전문재활환자와 단순요양환자를 위한

일반병실과 인공호흡치료, 기관절개간호 등이 필요한 집중치료병실로 구성되어 있다.

집중치료실

집중치료실에서는 집중 환자 감시장치를 갖추고 뇌질환 환자 및 호흡기, 순환기 질환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인공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한다.



고품격 입원실.



재활치료.



집중치료.



신경전기자극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척추재활견인 치료기

*진료안내

진료과목	진료소개
내과/신경과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폐렴, 만성폐질환/치매, 퇴행성 뇌질환, 외상성뇌질환
가정의학과	생활습관병관리, 건강검진 이상소견관리, 노인성질환
정형외과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재활의학과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물리치료, 운동치료, 고관절과 무릎관절 인공치환 수술 후 재활

*입원안내

입원 준비물

- 진료병원 소견서 및 검사기록지 / 의료보험증 및 신분증 (MRI, CT, X-RAY 등) / 약 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품
- 환자개인용품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 생활용품 (세면도구 일체, 플라스틱컵, 실내화, 화장지, 수건 면도기, 공기청정기 등)

입원절차

입원상담 ▶ 입원결정 ▶ 입원수속 ▶ 입원진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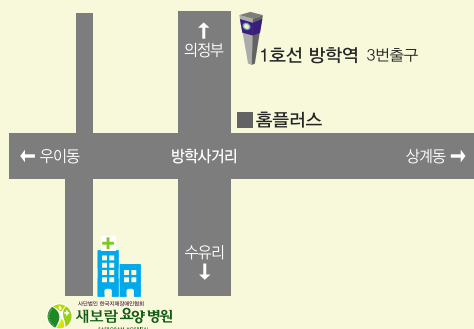
새보람 요양병원

SAEBORAM HOSPITAL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77-11 상곡빌딩
대표전화 02)3492-7888 팩스 02)3493-6888

| 지하철 | · 1호선 : 방학역 3번출구에서 방학사거리
우이동 방향 도보로 10분

| 버 스 | · 청색버스: 130,141 방학사거리 하차
· 녹색버스: 1119, 1161 방학사거리 하차



인터뷰 - 새보람요양병원 한원호 원장

Q) 먼저 새보람요양병원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새보람요양병원이 개원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또한, 병원이 오늘 이렇게 개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님 이하 모든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장애인을 위한 '전문요양병원'으로 알려지며 벌써부터 많은 장애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새보람요양병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A) 새보람요양병원의 장점은 첫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가 본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게 따뜻한 심성으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참사랑 정신의 실천을 통한 질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수한 의료진의 구성입니다. 간호사 및 직원 대부분이 대학병원 출신들로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 물리치료사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개인별 질환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식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한국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의 오랜 숙원으로 이루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장애인등록카드를 제출하시면 20~30% 정도의 비용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인테리어와 최신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체형에 맞게 주문 제작한 최고급 전동식 의료용 침대와 전열교환방식을 통한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병실과 부대시설에 자동냉난방 설비 시스템과 LCD TV를 설치하였으며, 전 화장실에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동 물내림 비데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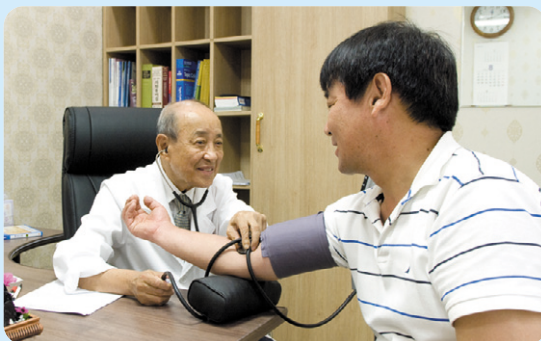
Q) 원장님의 운영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그동안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았던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마음을 치유해 주자는 것이 저의 병원 운영철학입니다. 앞으로 저희 새보람 요양병원은 장애인들에 대해 전인치유의 봉사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Q) 독자 및 전국 장애인들에게 한마디

A) 앞으로 저희 새보람요양병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병원 직원 모두가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병원을 찾는 장애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호 원장 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의학박사)
대전 공군기술교육단 205기지 병원 내과과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레지던트 수료(내과전문의)
서울시립 용산 남부병원 내과과장
한원호 내과 의원 개원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지역 워크숍



한국연합, 주도적 역할 담당할 발판 마련에 '성공'

김정록 회장, 성공적인 10년 위한 '아·태 연합 결성' 제안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한국연대회의’(이하 한국연대)가 지난 8월 18일(화)부터 21일(일)까지 아·태장애인연맹과 인도장애인연맹이 인도 뉴델리 타이궁전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준비를 위한 지역 워크숍’에 참가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정록), 한국장애인연맹(회장 채종걸), 한국장애인자립지원센터(회장 안진한), 장애여성네트워크(대표 김효진) 등으로 구성된 한국연대가 ‘장애인 권리협약(CRPD) 실행 가속을 위한 장애인조직(DPO)들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이유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기 위한 ‘아·태장애인조직(APDPO) 연합결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실시됐다. ‘폴뿌리 차원에서 장애인조직들의 행동’,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조직들의 행동’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국제개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조직들에 기여하는 방법’, ‘국제인권재판소안에서의 장애인조직들의 역할’, ‘인권 접근을 위한 장애인 권리’ 등을 주

제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UN ESCAP 패트릭 앤더슨
“워크숍에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성패 달려 있다”

먼저 워크숍 첫째 날(18일)에는 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패트릭 앤더슨 사회통합·발전부 의장의 강연이 실시됐다.

패트릭 의장은 “제1차 아·태장애인 10년은 장애인권리와 필요성, 제2차 장애인 10년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왔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등에서의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국의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정책과 법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패트릭 의장은 “2012년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이 끝나감에 따라 현재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몇몇 국가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제안한 상태로 에스캅이 각국정부, 이해당사자와 함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국 장애인조직들의 노력들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트릭 의장의 강연에 이어 부대행사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인회 등이 열렸다.

한국연대 아·태연합결성 제안
김정록 회장, “제3차 아·태장애인 성공 위해 아·태연합 결성해야”

한국연합은 이날(18일) 열린 ‘아·태연합 결성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에서 내달 9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진대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의 자격으로 제안서

를 발표하며 워크숍에 참가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김정록 회장은 “제1·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통해 장애인복지 인권향상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미진했다”며 “성공적인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태연합이 조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연합의 ‘인천전략안’ 설명

한국연합의 워크숍의 셋째 날(20일)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인천전략안’을 소개했다.

한국연합 김효진 집행위원장은 이날 인천전략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며 “한국연합의 인천전략안은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 중 아·태지역 장애인에게 진실하게 요구되는 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향상 도모를 위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설명한 인천전략안은 서문, 원칙과 정책방침, 목표와 실천, 이행촉진 매커니즘과 협력, 점검과 평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중 ‘목표와 실천’ 목록에는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 없는 비준과 이행, 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춘 국내법 제·개정, 장애여성 지원강화, 소수장애인의 권리보장 등 14개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지역 워크숍에 참석한 각국의 장애인·정부 대표자들이 회의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워크숍의 둘째 날 김정록 중앙회장이 성공적인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해 아·태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행촉진 매커니즘과 협력’ 목록에는 장애인조직 네트워크, 장애인조직지간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아·태장애인 국제협력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효진 집행위원장은 “아·태장애인국제협력재단 설립 및 아·태장애인국제협력기금 조성, 아·태지역장애인관련 사회개발목표 수립, 인천전략이행촉진하위지역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천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아·태장애인국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을 3,000만불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및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자조단체의 공동 협력하에 아·태장애인국제협력재단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은 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 및 교육, 인천전략 관련 연구사업, 장애인조직 네트워크의 활동 지원, 인천전략 관련 주제의 공모사업 등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는 “아·태장애인국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되 아·태장애인국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돼야 하며 특히 소수장애인과 여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델리 선언문 절충안 마련

한편 이날에는 뉴델리 선언문

초안이 발표됐다.

뉴델리 선언문 초안은 인도 뉴델리에서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진행된 워크숍에서 논의된 한국장애인조직연합의 인천전략안과 아·태장애인연맹 장애인조직 인천전략안을 합한 ‘절충안’으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초안에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원칙과 전략방향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방식을 통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증진, 접근성에 필요한 환경 보장, 장애인의 중심적 역할 주도 등을 담았다.

또한 새로운 10년의 행동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매커니즘 구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조조직 양성, 다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장애인의 정책결정 주도 등 11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위한 매커니즘으로 국제협력기금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 유엔에스캅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결의문에 대한 유엔에스캅의 이행, DPO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다.

워크숍 ‘폐막’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워크숍의 넷째날인 21일(일) 6시(현지시간) 폐막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인도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아·태장애인연맹은 내



한국연대 대표자들이 워크숍에 참가한 아·태 지역 국가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태지역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깃발을 한국장애인조직연합 측에 전달했다. 아·태장애인연맹은 2년에 한 번씩 지역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이날 폐막식에서는 워크숍 준비를 위해 수고한 인도장애인연맹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인도 워크숍의 성과

이번 워크숍은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이 2012년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다가올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국내에서는 한국장애인조직연합(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준비를 위한 한국연대회의의 명칭 변경, 이하 한국연합) 대표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지장협 중앙회장) 상임대표, 한국DPI 채종걸 회장, 김효진 부회장, 김대성 사무총장 등 총 18명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연합은 당초 목표였던, 새로운 아·태 10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마련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안의 내용이 반영되고, ‘아·태 장애인 조직 연합(APDPO UNITED)’ 결성 제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한국연합의 인천전략안은 워크숍 셋째 날(20일), 지난해 6월 태국 방콕 지역총회에서 아·태장애인연맹이 발표한 인천전략안과 함께 논의됐다. 이 결과 마지막날인 21일(일) 한국연대의 의견이 포함된 ‘절충 초안’ 마련에 성공했다.

절충 초안에는 한국연합 인천전략안의 내용 중 아·태장애인 기금 조성, 장애인 재난위험 방지, 지역을 기반한 자조조직 양성, DPO네트워크 구성, 인천전략이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사무총장은 “일단은 한국연합이 주장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된 만큼 이번 워크숍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초안을 다듬는 과정 중에도 아·태장애인연맹과 논의해 또 다른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충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아·태장애인연맹은 오는 9월에 10월 사이에 최종안을 마련, 각국 회원단체에 전달할 계획이

다. 유엔에스캅에서도 최종안을 10월 중순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스캅은 아·태장애인연맹 최종안, 각국의 정부안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한 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을 확정·채택하게 된다. 일정은 내년 5월 ‘제68차 에스캅 총회’에서 추진결의 및 10월 ‘유엔에스캅 정부간고위급회의(인천송도)’에서 제안, 2013년 5월 ‘제69차 에스캅 정기총회’에서 최종채택으로 잡혀있다.

한편 한국연합은 아·태장애인조직연합 결성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성과를 거뒀다. 결성 제안에 대한 각국 대표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과 동시에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이룸센터에서의 ‘결성을 위한 전진대회’ 개최를 결정지은 것.

김대성 사무총장은 “아·태장애인조직연합이 결성되면 시각·청각·지적장애 등의 국제장애인단체들 뿐만 아니라 IL단체들과의 결속력도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현재 보다는 훨씬 더 각국 장애인조직들과의 협력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아·태장애인연맹은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태지역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깃발을 한국연합 측에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 안면장애 등급 '5급' 까지 확대

노출된 얼굴의 45%이상 변형 등도 등록



안면장애 등급이 5급까지 확대, 안면장애 등록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8월 21일(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2일(월) 밝혔다.

이에 따라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는 기존 2급1호, 3급11호, 4급9호 이외에 4급3호와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이 변형되거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경우(안면장애 4급) 등에 한해서만 안면장애 등

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새로운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안면장애로 장애등록이 가능해졌다.

〈출처-에이블뉴스〉

서울 동작, '장애인취업박람회' 9월 23일 열려

30여개 기업 참가 예정...셔틀버스 수시 운행



지난 2009년에 열린 '2009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모습.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와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오는 9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5층 대강당에서 '2011 동작구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30여개의 다양한 구인기업이 참가해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 미용, 이력서 사진촬영 및 인화,

수지침, 네일아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된다.

이 밖에도 구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7호선 장승배기역 6번 출구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될 예정이다.

취업 희망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ilovenambu.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02-829-7180)

〈출처-에이블뉴스〉

우리은행, 장애인 등에 수수료 면제 확대

장애인 송금 및 ATM 수수료 100% 면제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8월 16일(화)부터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에게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내용은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를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폭이 50%로 확대되고, 만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금번 66주년 광복절을



우리은행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에게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우리은행 전경)

맞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송금수수료가 100% 면제한다.

방통위, 경기·인천 디지털TV 전환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8월 1일(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TV 전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취약계층 중 유료방송을 수신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TV(정부 지정) 구매 보조금 10만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취약 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해 자활사업 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부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의 차상위 계층과 시



송영길(오른쪽 세 번째) 인천시장과 최시중(왼쪽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약계층 디지털방송 지원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후 주민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민원24(www.minwon24.com)

www.minwon.go.kr),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 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금천, 장애인 보조기구 매월 무상점검

매월 셋째주 수요일...부품 교체 비용 지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 8월 17일(수)부터 장애인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점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금천구 독산1동에 위치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부품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금천구 장애인 재활보

조기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동안 구는 이동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연간 30만원, 이 외에는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왔다.

무상점검 희망자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02-6912-8051)에 사전예약한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충북,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도내 최초…2012년 개장 목표

충청북도 도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전용 체육관 건립이 추진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자활 지원 등을

위해 폐교된 청원군 오창읍 소재 옛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 등에 22억여원을 들여 '장애 학생 전용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7월 31일(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5천600여㎡의 터

에 지하 1층, 지상 2층(총 건축면적 1천100여㎡)의 건물을 지어 장애인 전용 경기장, 응급처치실, 휴게실, 보조 경기장, 관람석, 장애인 전용 리프트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기장은 휠체어를 이용한 농구, 배구, 펜싱, 실내 럭비 등과 시각장애인들의 핸드볼인 골볼, 중증 장애인들이 손이나 입으로 공을 표적에 접근시키는 보치아 등의 경기와 훈련 등을 할 수 있

도록 꾸밀 계획이다.

충북 도내에서 장애인 체육 활동을 위한 전용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내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해 훈련 및 경기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 체육계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중에 착공, 이르면 내년에 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 ‘장애인콜택시’ 통합운영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돕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장애인,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한 ‘콜택시’인 ‘해피콜’을 통합 운영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8월 1일(월) 오전 청주시 신봉동 소재 이동지원센터에서 한범덕 시장, 이종윤 군수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청원·청주 해피콜 통합 시연회’를 열었다.

청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승강기 등을 갖춘 차량 25대를 구입해 2009년 7월부터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해피콜’을 운영해 왔다.

청원군은 최근 차량 4대를 마련해 청주시에 위탁, 양 지역 행정구역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피콜’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해피콜’ 운행지역은 청주시와 청원군은 물론 인접한 증평군과 충남 조치원, 신탄진 등이며 이용요금은 청원군 2천원, 청주시 3천450원, 청원군 인접지역 5천500원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해피콜을 이용하려는 주민은 청주시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며 “청주시의 도움으로 청원군의 교통 약자들도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소외계층 대상 ‘여행 바우처’ 실시

여행을 가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소외계층을 위해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무상 여행상품을 내놓았다.

광주 문화재단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바우처 사업을 마련, 1차로 147명의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8월 3일(수)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월30일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흥도 소리 여행’ 등 5가지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별 여행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단위로 신청하는 복지시설 단체 여행 바우처, 올해 처음 도입돼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기획 여행 바우처로 구분된다.

대상자가 온·오프라인 여행사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다. 기획 바우처는 지원금 범위에 맞춰 지자체에서 자체 여행을 기획해 실시한다.

전남, 목포과학대학

‘특수복지교육과’ 신설

전국 최초…9월부터 30명 수시 모집

목포과학대학이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을 지켜줄 스포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특수복지교육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지난 7월 28일(목) 밝혔다.

대학은 선·후천적,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특수인(노인, 장애인 포함)이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교과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복지전문가와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전문가도 배출한다.

목포과학대학 박경래 교수는 “다양한 실습 기회와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졸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공 과정 이수 후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복지교육과 졸업생은 국민생활체육지도자(2급, 3급),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2급, 보육 특수교사자격인증,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장애인 스포츠 종목별 심판자격증 등을 딸 수 있다.

신입생은 오는 9월부터 30명 정원으로 수시 모집할 예정이다.

‘제1회 전국장애인사진전시회’ 출품작 모집

부산광역시장애인청년연합회와 데프출사코리아가 오는 9월 9일(화)까지 ‘2011년 제1회 전국장애인사진전시회’ 출품작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사진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이면 모두 가능하다. 출품작 주제는 제한이 없고 1,200X800pixel 이상의 2MB 이하 jpg파일로 등록된 작품이면 모두 가능하지만 트리밍, 흑백변환, 색감 보정은 허용되지만 합성사진은 불가하다.

희망자는 데프출사코리아 홈페이지(www.deafchulsa.com) 전시회 접수 게시판에 작품을

올리면 된다. 필히 제출자 성명과 작품명, 주소, 연락처, 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재해야 한다.

사진접수 신청한 모든 출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전시종료 후 작품은 시청이나 구청, 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작가의 이름이 붙인 채로 기증될 예정이다.

‘2011 제1회 전국장애인사진전시회’는 오는 9월 30일(화)부터 10월 4일(화)까지 금정구청 1층과 2층 구민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데프출사코리아 (051-555-0501)



‘2011년 제1회 전국장애인사진전시회’ 출품작 모집 포스터. ©데프출사코리아

〈출처-에이블뉴스〉

“문제 있는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 필요”

판정기준·의사위주 판정 방식 문제...“심사정보 공개해야”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는 8월 9일(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판정)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며 “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심사규정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의적 해석이 상당 들어갈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며 “그렇기에 어떤 장애인은 서류미비로 반려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편리를 봐주기도 한다. 그건 모두 국민연금공단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할 때 '다시 재심사하겠다'는 권한도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는 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에이블뉴스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방법도 없고, 누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얼마나 신청했는지 정보 접근 자체가 안된다. 정보는 완전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서 총장은 “등급심사는 서류심사로만 진행되고 서류엔 의사소견서도 있는데, 의사들이 (자신의 소견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애매한 표현을 쓰거나 기록을 무성의하게 잘못 써버리면 우리 장애인은 탈락해 버린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심사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권리”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과 의사 위주의 판정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시됐다.

서 총장은 “실제 장애인 판정에선 일상·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체적·정신적 등 의료적인

장애판정만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심장장애인의 경우 최근 6개월동안 입원도 하고 병원도 자주갔다고 한다면 장애인이 된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파서 못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내부장애인들의 경우 판정도구가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장애는 시력만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야맹증이나 눈부심이 있다가나 빛만 보면 눈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은 판정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며 등급판정 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서 총장은 “장애인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며 “장애종류는 반드시 기타 불편한 자가 포함됨은 물론, 운동과 감각·판단의 제한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적 제약으로 장애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의사는 이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자로 나선 한국DPI 김대성 사무총장은 “장애등급판정은 여전히 의사들의 진단서를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된다. 의사들이 만든 장애판정기준은 없어져야 하며, 장애등록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할인·감세제도는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레벨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장애인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며, 장애서비스별 판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별 판정센터를 만들어 서비스에 따라 판정받도록 해야 하며, 이는 의사들에 의한 판정이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준으로 장애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7월 20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한 '자치구의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 추가지원에 관한 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원하는 활동보조 추가시간이 각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7월 20일(수)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자치구의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 추가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특별시의회 고만규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소 14시간에서 최

대 12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비(최대 180시간)와 서울시비(현재 최대 80시간) 외 각 구청의 자체구비를 통해 추가되는 것. 지원 대상도 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장애인까지 지원하는 구청도 있었다.

이 중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4억5,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급 장애인은 물론, 3

서울 자치구, 활동보조 추가지원 ‘천차만별’

송파구 최대 ‘120시간’ 지원...7개 구는 ‘전혀 없어’

고만규 의원, “자립생활지원조례로 시간 보장해야”

급 중복(지적·자폐)장애인에 한해 4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의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는 2억8,880만원을 들여 시비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1·2급 장애인 중 인정조사표 상 220점 이상인 장애인에 한해 20~50시간의 추가시간을, 서초구는 2억7,360만원으로 1급 최중증장애인 및 2급장애인(인정조사표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40~100시간의 추가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 △송파구는 2억4,000만원(1·2급, 지적·자폐성 3급 장애아동-40~120시간), △동작구는 1억9,200만원(기초수급자인

2급장애인-30~40시간), △중구는 1억5,000만원(1급최중증장애인 및 2급장애인-40~100시간), △서대문구는 1억4,200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1급장애인 중 시비지원장애인, 수급자·차상위계층인 2급장애인-20~100시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자치구의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예산은 △성동구 1억3,440만원 △양천구 1억560만원 △강동구 1억원 △광진구 9,600만원 △노원구 6,720만원 △중랑구 6,000만원 △성북구 5,800만원 △도봉구 5,760만원 △종로구 4,800만원 △관악구

4,608만원 △용산구 3,801만 6,000원이다.

하지만 강북구·마포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대문구 등 총 7개 구는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만규 서울시의원은 “자치구의 예산이나 규모, 지역, 환경에 따라 지원형태가 각기 달라 문제점이 많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해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에이블뉴스〉

2011

WAKE UP!!

전국장애인단체 활동가대회

◆ 대회개요

- 대회주제 : ‘감성’ Wake up!! (조심의 감성을 기억하기)
- 일시 : 2011. 9. 20(화) - 2011. 9. 22(목)
- 장소 :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소재)
- 참가대상 및 규모 : 전국장애인단체 활동가,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명

◆ 주요내용

- 주제강연
- 모듈별 토론
- 제주테마기행 : 문화명소 탐방, 체험기행 등
- 활동가 교류의 시간





민원상담 Q&A



-기사제공-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
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장애인당사자분은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질문사항을 올
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
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289-4320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용주차장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주차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항의해도 경비들은 못 본척하네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약7센티 짧고, 나이는 42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장애인주차구역내의 비장애 차량에 대한 단속은 거주지 시군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차량의 주차 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내의 주차라 민원발생과 업무 과다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처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저의 회원들의 경우 비장애차량이 주차했을 때 전화를 통해 또는 경비실을 통해 이동주차를 요청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인것을 주지시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장애인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니 만큼 우리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식적인 회사의 업무 배치”

Q) 반갑습니다. 저는1987년 회
사에 입사하여 1996년에 사
고로 오른쪽 무릎의 인대·경골·연골
파손이 심각하여 그로 인해 관절장애 등
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숙소에서 다쳐 산재 신청도 할 수 있었지만 공장 이전으로 회사가 바뀐 관계로 그렇게 할 수 없어 3개월 동안 목발을 잡고 다니면서까지 자신을 감수하며 회사근무를 하였습니다. 1시간만 걸어도 무릎에 관절 통증이 심각하여 회사에서도 저의 장애 때문에 거의 앉아서 하는 업무로 편의를 봐 주었고요.

그런데 올 초에 직장상사가 저의 업무를 갑자기 변경하여 하루 10시간 이상 걸어 다니는 생산근무로 변경하여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조퇴 · 월휴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잔업 · 특근을 할 수 없어 가계생활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상사와 면담도
 수없이 했지만 그때마다 어쩔 수 없다
 고 하는데..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뜻인
 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차별금지) 조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 조문은 사용자에게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 노동시장 진입 후 노동시장 단계에서 장애인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장애로 인해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음을 알려 조정이 가능함에도 업무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바로 진정접수가 가능
하므로 http://consult.humanrights.go.kr/01_sub/body03.jsp을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아무쪼록 현재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사무직	공사백화점	서울시 은평구	40세 이하	여	전화상담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2	생산직	(주)삼화유비텍	경기도 화성시	40세 이하	남	불량품 유무 선별작업	월 105만원/상여금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3	생산직	모던조이	서울시 중랑구	40세 이하	무관	미싱보조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4	사무직	(주)한국자산관리프라미스	서울시 용산구	40세 이하	여	사무직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5	경비직	(주)인덕종합관리	서울 전역	65세 이하	남	아파트 경비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6	생산직	대흥사	서울 전역	40세 이하	남	문구 생산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7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5세 이하	남	소독원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8	미화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50세 이하	여	생산직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9	미화직	(주)유전실업	서울 전역	68세 이하	여	건물 및 은행 미화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0	생산직	(주)씨피엘	경기도 안산시	40대 이하	남	사출	월 17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1	서비스직	(주)엘에스비네트웍	경기도 안산시	40대 이하	남	택배분류원	월 17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2	전문직	멀린	서울 서대문구	39세 이하	무관	소프트웨어개발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3	사무직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서울시 마포구	40세 이하	여	수출입무역관련 사무직	연 2,000만원이상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4	사무직	(주)조은프로소싱	서울시 강북구	40세 이하	남	피복 치수측정 사무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15	모니터요원	(주)시지온	서울 전역	40세 이하	무관	모니터 요원(재택근무/3교대)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기 고

장재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

“독도, 그 장엄한 땅에 서다”

2011년 7월 5일.

울릉도에서 출발한 배가 조금씩 파도에 울렁대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독도에 접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바다 상황을 보고 접안 여부를 결정한다는 안내방송을 들은 후로는 더더욱 불안했다. 열에 여덟은 독도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던 터라 불안감은 더욱 컸다.

그러나 다행히도 배가 독도에 가까워지자 너울이 잦아들었다. 흔들거리는 배안도 조금씩 고요해졌다. 그때 반가운 안내방송이 흘렀다.

“지금 우리 배는 독도에 접안 중입니다. 내리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기쁜 순간이 또 있을까? 나를 포함한 우리협회 시·군지회장들은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장애인지도자로서 독도를 찾은 것은 전국 최초다. 경북 23개 시·군지역

장애인들을 대표해 국민과 함께 독도를 지켜내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경상북도와 다아가 족이 힘을 보태줘 가능한 일이었다.

배에서 내린 우리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독도 지키기, 경북지체장애인이 함께 합니다’라는 메인 현수막과 함께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 ‘역사왜곡 일본 응징하여 바로잡자’ 등 수십 개의 손 현수막이 독도를 물들었다. 우리는 경북 23개 시·군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힘껏 외쳤다. 우리 장애인들이 독도 지키기에 힘을 보탤다는 것이 뿌듯한 순간이었다. 퍼포먼스를 마친 후 우리는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 30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바다 한 가운데 오롯이 서 있는 독도가 가만히 품에 와 안겼다. 그곳

을 지키는 경비대원들이 오래도록 손 인사를 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독도를 함께 수호하리라는 다짐을 담아 우리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그날 밤, 울릉대아리조트로 돌아온 나는 화합의 밤 자리에서 우리협회 시·군지회장들과 실무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마철에 독도땅을 밟은 것은 정말 행운이고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가슴 뿌듯하다. 그리고 독도에서 펼친 캠페인은 뜨거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그 기운이 여러분 가슴에서 꽃 피워져 행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내 목소리는 상기된 듯 떨렸고 임직원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독도에서의 감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이번 독도문화탐방은 경상

북도가 후원하고 대아고속해운과 대아리조트가 선박과 숙박을 지원해 개최된 행사다. 장애인지도자들이 독도지키기에 나서겠다고 하자 대아가 즉 황인찬 회장이 선뜻 선박과 숙소를 제공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그 외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중도 울릉군지회장과 울릉군에서 발품을 팔았다. 장마철이라 기후가 불안정했음에도 7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일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하늘도 우리의 뜻

과 함께한 아주 뜻 깊은 행사였다.

그 날의 가슴 벅찬 감동과 여운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 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대아가족 황인찬 회장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독도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독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처럼 우리는 더욱 합심하고 협동하여 장애인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장재권 협회장 프로필

- ▲1952년 출생
- ▲학력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경력 : (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주)장우 대표이사
한나라당 전국 상임위원
경북장애인신문 발행인

칼럼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시각장애인이 자신을 안내해주는 보조견과 함께 지하철을 탔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이양증의 중증지체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국회를 참관하려고 신청했다가 보조견은 입장시킬 수 없다고 제지당하자 아예 참관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

애인의 보조자로서 보조견이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견에 대한 역할 인식 미비 등 우리의 복지 의식 수준은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조차, 심지어 장애인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보조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 장애인 당사자에 있어서 철저히 훈련된 보조견은 주어진 행동을 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조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컬어 보조견을 장애인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더 나아

가 지적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전 장애유형을 총 망라해서 장애인의 도우미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 보조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화재와 장애인보조견훈련센터 등에서 훈련하고 있고, 훈련지침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일상생활이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보조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견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길 안내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각장애인과 일생을 같이 하는 보조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체장애인에게는 봉사견입니다. 특히 손발이 불편한 지체장애인과 근이양증 등 스스로 휠체어조차 굴릴 수 없는 장애인에게 스위치를 켜 불을 밝혀주고, 신용카드 사용도 도와주는 등 힘겨운 봉사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보청견 역할을 합니다.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를 잘 발달시킨 개를 보청견으로 활용합니다. 이 보청견은 화재, 경보음 등 각종 응급경보음이 울렸을 때 청각장애인에게 민첩하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한편, 전화나 시계, 자명종 심지어 어린이들의 울음소리까지 식별해 청각장애인에게 고지합니다.

네 번째,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친구견입니다.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인은 친구를 잘 사귀기 어렵습니다. 보조견은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람을 위해 특수하게 훈련된 보조견, 비단 장애인에게 한정된 공간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더불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보조견의 역할은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도울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장애인 보조견과 복지의식”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배우 최필립, 장애인 위해 ‘재능기부’ 나서

MBC ‘함께 하는 세상’ 및 영화에 노개런티로 출연

배우 최필립이 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필립은 최근 MBC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의 MC로 발탁돼 진행을 맡고 있다.

교양 프로그램이지만 개런티를 받고 출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최필립은 먼저 노 개런티로 출연을 결정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개봉한 스틸러 영화 ‘블라인드’(감독 안상훈)에 깜짝 출연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시각장애인 수아(김하늘)가 범죄를 목격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잘 표현한 ‘블라인드’에서 최필립은 정보과 형사 역으로 특별출연했다. 이에 대해 최필립은 “먼저 시나리오를 읽고 작은 역할이라도 영화에 보탬이 되고자 감독을 만나 노 개런티 출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필립은 “평소 장애인과 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았다. 어떻게 하는 게 그들에



영화배우 최필립. ©앤츠스타 컴퍼니

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 망설였는데 우연히 좋은 프로그램과 영화에 출연하면서 작은 보탬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사회봉사와 나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병대 출신으로 유명한 최필립은 시트콤 ‘소울메이트’와 드라마 ‘경성 스캔들’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아름다운 약속, 첫 ‘유산 기부자’ 탄생

종로구 강씨…취로사업 나가 번돈 2000만원 쾌척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유산으로 기탁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복한 유산기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11년의 첫 기부자가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재의 주인공은 20여년간 취로사업을 나가 조금씩 모아온 2000만원을 기부한 강 모(83세, 여)씨.

강 할머니는 지난 8월 17일(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종로1·2·3·4가동 복지담당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산공증을 했다.

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 중인 ‘행복한 유산기부 사업’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모토로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유산으로 기탁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사

랑실천의 한 방법이다.

구는 그동안 자녀가 없는 무의탁노인들의 공적급여와 사회적 도움으로 생활하다가 남겨진 생계급여통장 잔고, 전세보증금 등의 유산이 집주인, 왕래가 없던 먼 친척이나 거래은행 등의 제3자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강 씨는 “난 나 혼자야. 내가 어렵게 번 돈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느냐”며 소감을 밝혔다.

강 씨가 기부한 유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저소득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행복한 유산 기부 사업’은 정신 상태나 재산 상태가 건전한 18세 이상의 성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1년 7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시연, 강지민, 곽은영, 김경희, 김구환, 김성우, 김유림,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환경, 남용원, 남혁우, 마사회, 민속박물관, 박경일,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삼화이앤피, 서재훈, 선병욱, 손영주, 시난이, 유재복, 윤주석, 윤채환, 이상돈, 이은정, 이지수, 임채중, 정다운,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성훈, 최인준, 최제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힌
트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난 8월 30일 개원한 장애인전문요양병원의 이름은 ○○○요양병원.

	★1	★2		★3		4
	5				6	
7						
						8
9					10	



지난호 정답

1★창				2 각	선	3 미
덕		4★평		성		인
5 궁	6 여	지	책			박
	행				7 사	명
	8 사	9 기			마	
		상			10 천	11 지
	12 이	청	용			진

7월호 정답

평창

당첨자

이미영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정성호 경기도 의정부시 기능동
우창석 충북 청주시 용암동

| 가로열쇠 |

- 미국에서 1983년 개봉된 영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주인공인 실버스타 스탈론을 스타로 만든 영화 제목.
- 고래 싸움에 ○○○ 터진다.
-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이 함락되자 축석루의 술자리에서 당시 왜장(倭將)이었던 게야무라 후미스케(毛谷村文助)를 꺾고 남강에 투신한 조선 선조 때의 의기(義妓).
- <역사>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 주로 간관(諫官)이나 삼관(三館)의 관원이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렸다.
-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 신라 제27대 왕(632~647). 성은 김(金). 이름은 덕만(德曼). 김춘추에게 중국 당나라의 원군을 청하게 하여 백제를 침공하고, 9년(640)에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어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
- “○○지키기 경북지체장애인이 함께 합니다!” (본지 3면 참조)

| 세로열쇠 |

- 웃을 때 볼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자국. 볼과 조개가 합하여진 말로서 볼이 조개처럼 오목하게 들어갔다 하여 생긴 말이다.
- <뽕틀>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 <문화>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
- <동물> 연골어강 악상어목의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의 길이는 0.4~18미터이고 방추형이며, 방패 비늘로 덮여 있다. 지느러미가 발달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체내 수정을 하고 난생과 난태생이 있으며 민첩하고 사납다.
- 기원전 233년 무렵에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로, 중국의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자리 잡았으며, 위만(衛滿)이 집권한 이후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으나 기원전 108년에 중국 한(漢)나라에 멸망하였다.
- <지명> 아시아 남부, 인도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화국. 고대 문명과 불교의 발상지로, 1947년 영국에서 자치령으로 독립하여 인도 연방과 파키스탄으로 분리되고, 1950년 완전히 독립하여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Unlimited Challenge to the World

International Abilympics

2011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세상을 아름답게 할 우리의 도전과 열정!
이 세계적인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주최 |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주관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BS

SAMSUNG

HYUNDAI
MOTOR GROUP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CA
KOREA COFFEE ASSOCIATION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Autodesk

Microsoft

대한민국상이군경회
Korea Disabled Veterans Organization

NP
EDA

한국재활복지대학

Unicorn

삼천리자전거

NAVER

(주)무학

RIME LITE

주 코데스트

롯데칠성음료

IN³tech (주)인큐브테크

Canon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D·Bridge

NEOWIZ
GAMES

JUKI

세계를 향한 끝없는 도전! 50개국 1,500명의 선수단이 만드는 열정과 감동의 무대가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일자 : 2011년 9월 25일(일) ▶ 9월 30일(금) 6일간

장소 : aT센터, 올림픽공원 올림픽홀